

Magnolia obovata

일본목련

도입 수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잎의 크기가 가장 크며 자라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 특히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후박피(厚朴皮) 즉 후박나무 껍질은 지금 소개드리는 중국목련과 일본목련의 겹껍질이 한방에서 사용되는 후박(厚朴)이다.

몇년 전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님이 중국에서 중국 후박나무 묘목 한그루를 가져다 주시면서 홍릉수목원에서 잘 키워보라시며 놓고 간 중국목련이 어느덧 4m정도 자랐다.

- ▶ 과명 : 목련과
- ▶ 학명 : *Magnolia obovata*
- ▶ 영명 : Japanese Cucumber Tree,
Japanese Big Leaved Magnolia
- ▶ 한명 : 厚朴
- ▶ 일명 : ほおのみ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1. 생태적 특성

일본 원산으로 1920년경 도입되어 중부 이남에서 식재하고 있으며 수고 20m, 직경 1m에 달하는 낙엽활엽 큰키나무로 원줄기가 곧게 자라며 곁가지가 돌아가면서 둥글게 나오므로 수형이 아름답고 자연미가 있어 조경수로 많이 사용된다.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의 비옥지에서는 생장이 양호하나 내한성이 약하며, 겨울에는 수피가 터지는 동열과 한여름에는 줄기의 겹껍질이 타서 벌어지는 피소피해를 받으므로 가지치기나 서향받이에 식재는 피해야 한다. 공해에는 강한 편이나 이식력은 약하여 큰나무를 이식하면 활착이 불량하다.

이식코자 하면 2~3년전에 뿌리돌림 작업을 통해 잔뿌리 발달을 충분히 시킨다음 옮겨야 한다.

2. 형태적 특성

원줄기는 곧게 자라며 잎은 길이 20~40cm, 넓이 13~25cm의 긴 타원형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여 잎 뒷면은 잔털이 있어 흰빛을 띤다. 꽃은 양성으로 잎이 핀 다음 가지 끝에 1개씩 달리며 지름 15cm의 큰 꽃이 황백색으로 피며 향기가 매우 좋다. 10월에 익는 열매는 긴 타원형이고 길이 20cm이상 되는 것이 있으며 홍자색으로서 관상가치가 높고 종자는 익으면 벌어져서 나와 백색 실에 매달린다.

중국이 원산으로 잎의 형태나 꽃, 열매의 형태가 일본목련과 유사하나 잎의 끝이 약간 들어간 요두(凹頭)인 것이 일본목련과 차이가 나며 중국목련(*M. officinalis*)이라 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여름철 길고 넓은 잎은 남국적 향취를 주며 달콤하고 진한 향기를 갖는 꽃은 매혹적이어서 공원수, 가로수로 적당하다.

특히나 어릴때부터 속성으로 자라는 일본목련은 공원의 잔디밭 귀퉁이에 몇그루만 모아 심어도 금방 시원한 그늘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성숙된 잎 사이에서 피는 꽃은 향기가 좋다. 꽃이 지고난 후 결실되는 열매도 관상가치가 높다.

4. 번식법

가을에 익는 열매를 채취하여 붉은 열매를 얻은 다음 반드시 종자의 바깥을 둘러싼 겉껍질을 제거시킨 다음 검은 종자만을 노천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면 된다.

5. 고 박의 용도

한방에서는 나무의 껍질을 후박이라하며 줄기의 껍질, 뿌리의 껍질을 따로 약재로 쓰며 종자는 후박자(厚朴子), 꽃은 후박화(厚朴花)라하여 대부분 위장장애를 치료하는 중요한 약재로 사용한다.

일본목련이나 중국목련은 조경수로도 식재되었지만 약용수로도 식재할 만하다.

